

CNI세미나 2018-007

제28회 충청중국포럼

두 중국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

일 시 : 2018. 02. 28.(수), 10:00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제28회 충청중국포럼

-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 군 중국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왔음
- ◆ 이번 제28회 충청중국포럼은 국민대학교 박철현 교수를 초청해 ‘두 중국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주 제 : 두 중국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
- 일 시 : 2018. 02. 28.(수) 10:00~12: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연 사 : 박철현 교수(국민대학교)
- 참 석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및 관심있는 모든 분

■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개 회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인사말씀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0:05~11:35	발제 ▶ 두 중국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	박철현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11:35~12:00	종합토론 ▶ 발표자, 참석자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2:00	폐 회	

■ 박철현 교수 프로필

◆ 학 력

-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학사)
-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중국지역연구(석사)
- ❖ 중국 인민대학교 사회학과(박사)

◆ 경 력

-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2012년 9월 ~ 현재)
-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2013년 3월 ~ 6월)
- ❖ 국민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사(2013년 9월 ~ 12월)
-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강사(2013년 3월 ~ 현재)
-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강사(2014년 9월 ~ 12월)
-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2015년 3월 ~ 현재)
- ❖ 『역사비평』 편집위원, 『만주연구』 편집위원(2016년 2월 ~ 현재)
-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연구센터 공동연구원(2017년 9월 ~ 현재)

◆ 연구실적

- ❖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1, 2』 (역음)
- ❖ 『다렌연구: 초국적 이동과 지배, 교류의 유산을 찾아서』 (공저)
- ❖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공저)
- ❖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스마트시티 건설: 상해 푸둥신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중국 동북 지역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노후공업도시’」
- ❖ 「개혁기 위계적 시민권과 중국식 도시사회의 부상」
- ❖ 「중국의 도시재생과 기층 사회관리체제의 변화: 베이징 ‘역사문화보호구’의 도시 거버넌스」
- ❖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1990년대 상해 푸둥 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 ❖ 「개혁기 상해 도시재생의 문화정치: “석고문” vs “공인신촌”의 논쟁을 중심으로」



두 중국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

박철현 교수
(국민대학교)



두 중국 도시 이야기 : 상해와 심양의 개혁개방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박철현

2018년 2월28일





도농이원구조

도농이원구조(城鄉二元結構)

(1) 도농이원구조의 변화

▶ 1953년 제1차 5년 계획

대규모 공업화 시작 → 급속한 도시화 진행

▶ 1958년 이후 공업화는 지속, 도시화는 정체

도시화율: 1952년 12.5% → 1958년 16.3% → 1978년 17.9%

1978년 GDP 중 비중: 1차산업 28.1%, 2차산업 48.2%, 3차산업 23.7%

도시화는 공업화에도 못 미침

▶ 2005년 도시화율 42.9%(1978년 대비 25.07% 증가)

매년 1443.2만명의 도시인구가 증가

→ 2011년 도시화율 50% 돌파, 2020년까지 60% 돌파 예상

(2) 도농이원구조 불합리성

▶ 도시화 정체, 공업화 가속

GDP 중 非농업인구 87.6%(2005년), 도시화율 42.99% →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불균형

▶ 도시 내부에 도농이원구조의 모순 존재

→ 지방정부는 도시민과 2억8천만명(2016년)의 농민공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시행, 이는 도농이원구조를 도시 내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농민은 동일한 장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음

▶ 도시-농촌 관계의 불합리성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소득격차 심화

(3) 중국 특유의 도농이원구조

▶ 일반적인 도농이원구조

낙후한 전통농업부문과 선진적 현대경제부문이 존재하지만, 경제의 발전과 함께 농업사회가 현대적 공업사회로 전환되고 이원구조는 해체

▶ 중국의 도농이원구조

195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 진행 이후, 1960년대 이후 농업인구의 非농업인구로의 전환이 엄격히 제한되는 호구제도 수립

▶ 문화대혁명기

자원부족과 공급곤란으로 도시-농촌 분리 호구제도를 근거로 도시민과 농민을 분리하는 체제와 구도가 성립

▶ 개혁기

경제체제와 사회체제는 변화했으나, 호구제도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도시와 농촌은 서로 다른 개혁이 이뤄짐

(4) 중국 도농이원구조의 특수성

▶ 도시-농촌을 분리하는 호적제도

농업호구가 비농업호구가 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농촌 노동력이 자유로이 도시에 진입할 수 없고, 도시에 진입해서 2차,3차 산업에 종사해도 호구는 바꿀 수 없음

▶ 도농이원구조의 사회구조

1960년 이후 농업호구를 가진 거주민과 비농업호구를 가진 거주민에게 시행하는 사회경제정책을 분리하여, 전자는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측면에서 혜택, 후자는 이런 권리가 없음

▶ 도시-농촌 이원구조의 제도화

오랜 세월에 형성된 제도화로 인해 이원구조는 체제화되어, 인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깊이 뿌리박혀, 전면적인 개혁이 없으면 변화 불가능

(5) 도농이원구조 형성의 기원: 사회주의 시기
(1949-1978) 공업화

① Big Push Industrialization

▶ 가용한 최대한의 자원을 중화학공업에 최우선 투자하는 발전전략

▶ 정부가 대부분의 경제를 직접 통제

▶ 대부분의 투자는 산업에 집중, 산업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에 80%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업(1952년 18% → 1978년 44%)

농업(1952년 51% → 1978년 28%): 개혁기 이전의 농촌 잉여노동력

② 지령경제체제(commanding economy)

▶ 중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소련의 지령경제체제를 채택

- 정부는 모든 대형 공장, 운송 및 통신기업을 소유하고, 농촌에서는 농업집체들이 토지 소유권과 농업경제의 경영을 장악
- 계획당국은 기업 생산목표를 정하고, 자원과 재화를 직접 배분
- 가격의 미시적 자원배분 기능은 무시되었지만, 정부는 자원이 정부와 Big Push Industrialization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가격체계를 통제하고 상대가격을 설정
- 당-국가는 위계적인 인적 관리체계를 통해 경제 통제

- ▶ 협상가격차(鉞狀價格差: Price Scissors)
 국가가 의식적으로 공업생산물(국가가 소유)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농산물(농업집체가 소유)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
- ▶ 1953년 정부는 농민의 의무적인 곡물공출제를 확립, 핵심농산물에 대한 정부 독점을 실시하고 이를 30년 이상 유지
- ▶ 농민은 국가 곡물독점을 통해 정해진 공출량을 낮게 책정된 가격으로 공급
- ▶ 낮은 농산물 가격에 비해, 공산품은 매우 높게 설정되고, 임금은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농업생산물과 공업생산물의 부가가 교환)
- ▶ 정부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진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상해와 푸둥신구

상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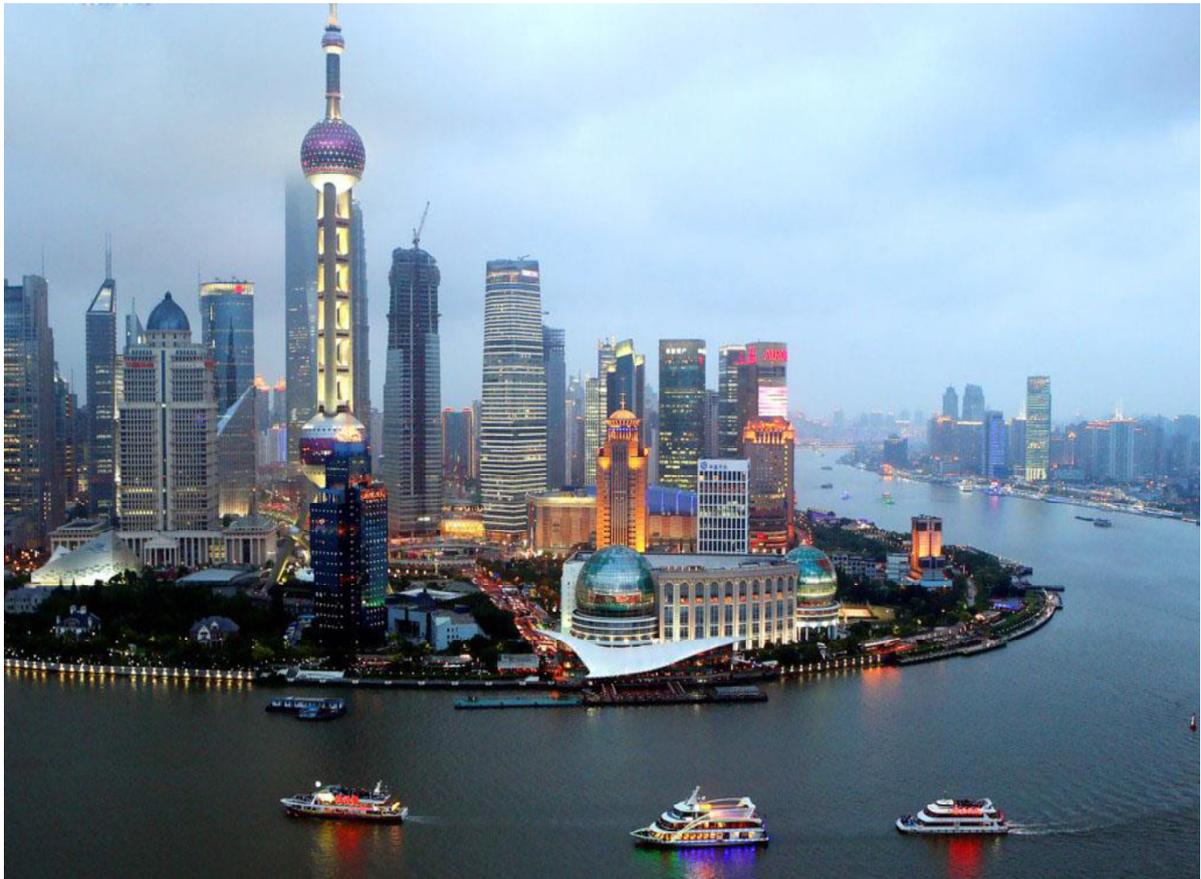
상해 행정구획도



푸동신구



루자주이(Lujiazui)



상해 개황

- 약칭 후(沪: 호),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
- 상주인구 2500만 명의 동아시아 최대도시
- 면적 6340.5km²(베이징 16410.54km², 서울 605.25km²)
- 중국 공업의 발상지, 저장(浙江) 장쑤(江蘇)와 함께 중국 최대 경제중심지인 장삼각(長三角)경제권
- 중국 경제 과학기술 교통 공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지역GDP 1위의 경제수도
- 중국 최초의 근대적 도시문화와 강남(江南)문화 및 각 지역 출신 이주민의 문화가 뒤섞여, 대중성 통속성 실용성 상업성 근대성 식민성을 특징으로 하는 '해파문화(海派文化)' 형성

푸둥신구(浦東新區) 개발

- 1990년대부터 상해 도시구역은 크게 확대
: 건국 초기 푸둥은 당시 상해시 전체면적의 1/4차지
현재 전체면적의 22.55%(1429.67km²), 인구는 518.72만명.
- 20세기초, 쑨원(孫文) 건국방략(建國方略), 국민당 정부의 대상해(大上海)계획,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상해 개발계획에서 푸둥개발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으나 실행되지 못함
- 푸둥은 개혁기 전까지 계속 낙후된 상태
“寧要浦西一張床，不要浦東一間房”
(푸둥에 집 한 채 보다, 차라리 푸시에 침대 하나가 낫다)
- 1980년대 내내 푸둥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

- 1990년 푸둥신구 개발 시작
국내외 신구(新區) 개발경험에 기초,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도시 전략에 근거, 선진적 종합교통망, 완벽한 도시인프라, 현대적 정보체계와 양호한 생태환경 구축
- 푸둥신구 개발에 의해 푸시지역의 개조와 발전을 유도, 상해가 전국 경제중심 도시 기능 회복, 국제적인 금융 무역 경제 중심이 되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구상
- 개발배경
상해의 개혁개방은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에 10년 뒤처짐: 1980년대가 시장화 개혁의 탐색기였고, 상해가 중앙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상해의 개혁개방은 지체될 수 밖에 없었음; 1980년대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실험은 동남 연해 지역의 경제 특구와 개방도시에 국한

- 푸둥신구 개발의 특징
첫째, 도시 건설과 발전 전략은 매우 적극적이고 시장친화적
둘째, 실천과 추진속도 측면에서의 신속 과감
- 상해 경제성장의 2단계
1단계 - 푸둥 신구 개발에 힘입어 상해는 두 자리 경제성장
2단계 -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하면서 산업 및 경제구조를 조정
- 푸둥개발과정
→ 준비 단계(1980년대 중반~1991)
1980년대 중반부터 푸둥 발전에 관한 연구토론
중국 정부의 개발 방침 확정
관련 정책과 법규를 제정

→ 기초개발 단계(1992~1999)
실질적인 개발 및 개방 작업 지원을 위한 선도 정책 시행
개발단지와 개발업무를 담당할 국유개발공사 설립
국유토지를 자본금으로 투입
교통, 항만, 에너지, 통신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 특화와 고도화 단계(1999~)
푸둥신공항 1기 공사 완공
항만, 지하철, 신공항 연계도로
금융과 무역 위주의 특화

- 주요정책
상해시 정부에 더 많은 권리부여
투자자에게 특혜 부여
좋은 투자환경 제공, 행정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합리화 효율화
- 푸둥신구 개발전략의 특징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주도
1990년 4월 중국정부 푸둥 개발 결정
리펑 총리가 이를 선포
푸둥신구 개발은 도시발전전략/국가발전전략
상해 만이 아니라 장강 삼각주 전체의 발전을 겨냥한 전략적 의의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

루자주이(Lujiazui) 개발과정

- ▶ 1988년 토지 유상(有償)사용제도
→ 토지자원을 활용한 경제성장이 합법화
- ▶ 1990년대
중국 국내 은행들 상해 지점, 증권교역소, 증권회사, 보험회
사수출무역 관련 기업들이 세운 88층 진마오(金茂) 빌딩
일본 태국 등 외자기업과 중국 합작으로 부동산 개발
1998년 공유제 주택 폐지 이후 황푸강변에 고급 아파트 집중
건설
- ▶ 루자주이 집단공사(集團公司)
상해 시정부가 푸둥개발을 위해 설립한 4개 국유기업 중 하
나; 자금조달, 투자, 부동산 인허가, 개발기획 등을 담당

국제자문단 구성

▶ 1980년대 구상

→ 상해를 기존 2차 산업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금융무역중심 3차 산업 도시로 바꾸려는 기획; 기존의 푸시지역이 아니라 푸동지역이 그 대상

▶ 1986년 「루자주이 개발계획」

상해시 도시계획설계연구원이 주도

상해의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를 푸동지역에 조성

전통 도심 푸시가 황푸강을 넘어 푸동지역으로 이어지는 핵심고리로 설정

▶ 상해 시정부와 공산당 지도부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 시기 시장 주룽지(朱鎔基)와 서기 황쥐(黃菊) 지도부는 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중시

프랑스 국토도시연구소(IAURIF)와 접촉을 통해 국제자문단 구성하기로 결정

1992년 초 4개국 해외자문단 구성

▶ 4개국 해외자문단+중국 자문단

영국 리차드 로저스(Richard Rogers)

이탈리아 마시밀리아노 폭사스(Massimiliano Fuksas)

프랑스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일본 이토 토요(Itoh Toyo)

중국 황푸상(黃富廂)

▶ 1994년 「루자주이 개발 마스터 플랜」 채택

중국 측이 주도하고 해외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성

→ 1986년 상해 도시계획설계연구원의 계획안과 큰 차이 없음

▶ 크리스 올즈(Kris Olds) 주장 1

최종 마스터 플랜 채택은 상해 시정부와 공산당 주도

상해시 도시계획설계연구원, 화동건축설계연구원, 루자주이 집단공사, 통지대학 등 중국 측 전문가가 주도

황푸상이 중심인물(상해 도시계획설계연구원 교수, 고급공정사, 통지대학 출신)

▶ 크리스 올즈 주장 2

→ 상해 시정부는 국제자문과정 통해 국내외 미디어의 주목을 이끌어냄

투자주이의 정체성은 이전의 공장과 노동자 주거지역에서 하이테크 도시로 즉각적인 이미지 전환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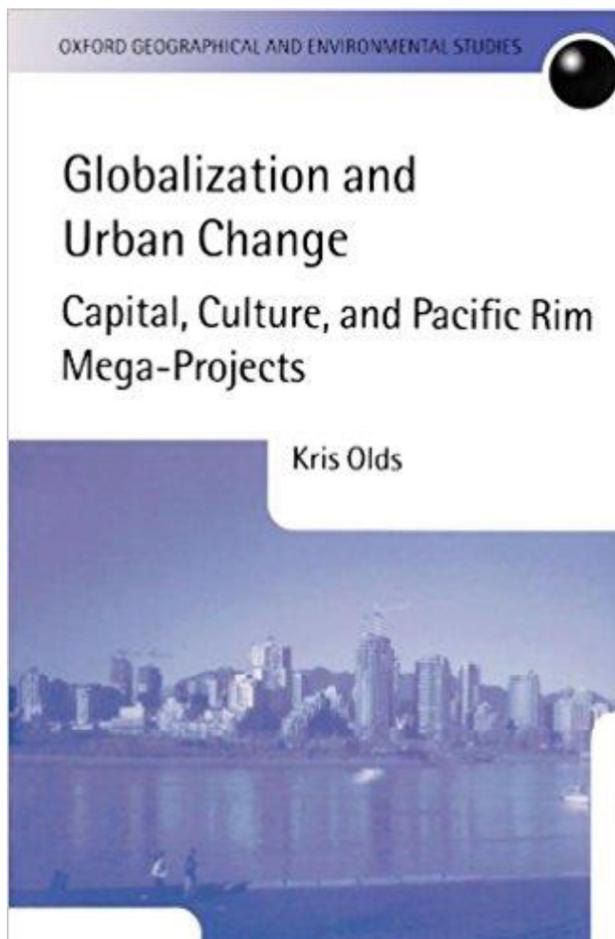
강력한 이미지 전환은 중국 정부와 해외 모두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장기적인 지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

→ 투자주이에 관한 다양한 모델과 그래픽들은 국내외 정치인과 투자자에게 강력한 인상

상해를 현대적인 하이테크 도시와 21세기 국제적인 수준의 메트로폴리스로서, 뉴욕,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 같은 글로벌시티 반열에 올림

해외투자자들은 상해 시정부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

→ 상해 시정부는 투자주이 국제자문과정에서 생산된 이미지를 통해서 시정부, 국제금융중심지, 국제전문가들을 관련시킴으로써, 건축의 후원자로서의 상징자본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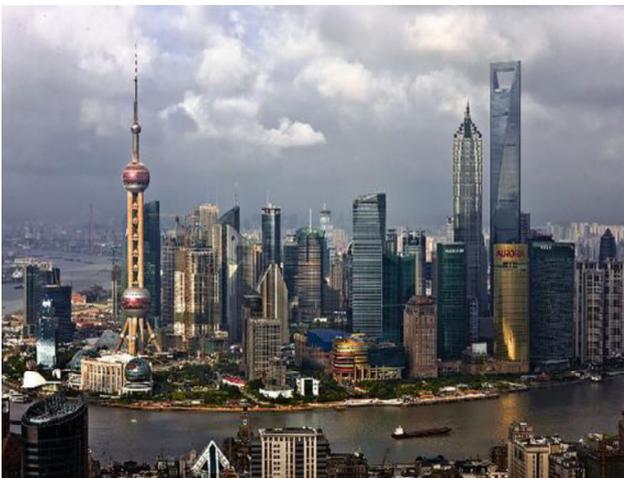
https://www.amazon.com/Globalization-Urban-Change-Mega-Projects-Environmental/dp/0199256969/ref=la_B001HPGCYA_1_1?s=books&ie=UTF8&qid=1519029021&sr=1-1

푸동신구





루자주이(陸家嘴): 금융무역지구



인구 50만명의 푸둥신구 핵심지역, 고급 제3차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상업중심을 건설

푸둥신구 스마트시티

-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 목적
효율적 정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안정 위기요소에 대응
 - 푸둥신구 상황
5백만 이상의 상주인구; 낮은 인구학적 동질성; 농촌과 도시 공간의 혼재; 1992년 중국 최초의 국가급 신구(國家級新區) 지정 이전, 푸둥신구는 농촌지역; 단위체제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구 건설 실험에 유리
- ⇒ 간단히 말해서 기존 체제가 가지는 경로의존성(經路依存性: path dependency)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구건설과 스마트시티 건설 실험에 용이

스마트시티 건설의 효과

- ▶ 정밀한 사회관리
: 도시인프라, 교통, 환경, 위생 등에 관한 정보를 탐지, 수집, 분류,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

: GPS, GIS, RFID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 기층사회에서 농민공, 긴급상황, 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탐지, 수집, 분류,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
- ▶ 푸둥신구 정부
: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수직적 수평적 행정체계의 정점에 위치하게 됨
- ▶ 스마트시티 기술
: 푸둥신구 정부는 개혁기 도시사회의 불안정성에 즉각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 ▶ 푸둥신구 스마트사구 격자망화 관리시스템의 12개 서브시스템

서브시스템 명칭	기능
성관통(城管通)	격자망 인원과 감독인원을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감독인원은 이것을 통해서 기층 격자망 인원이 보고한 정보를 다시 이것을 통해서 구정부 격자망화 관리중심에 보고
탄원처리(呼呷受理)	감독인원과 도시관리에 대한 대중의 탄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협동업무(協同工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부문들이 도시기초시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대형스크린감독지휘(大屏幕監督指揮)	대형스크린과 전자지도를 결합시켜서 실시간으로 사회관리업무의 처리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종합통계분석(綜合統計分析)	개별 격자망에서 제기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분석하는 시스템
지오코딩(地理編碼, geocoding)	도시지리정보를 코드화하여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기초데이터관리(基礎數據管理)	격자망화 관리와 관련된 각종 지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대중웹사이트발표(公衆網站發布)	격자망화 관리중심이 공개발표를 하는 시스템
지도부모바일감독관리(領導移動督辦)	구정부 지도부가 성관통으로 보고된 정보를 모바일로 감독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영상모니터링관리(視頻監控管理)	격자망에 설치된公安부문과 도시관리부문의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
구성과 보호(構建與維護)	격자망화 관리시스템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데이터 교환(數據交換)	관리부문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

심양과 철서구

Ad Vitam presente

Grand Prix - Festival International du Documentaire - Marseille 2003
Montgolfiere d'Or - Jury Documentaire - Festival des 3 continents - Nantes 2003

A L'Ouest des Rails

Un film en 4 parties de Wang B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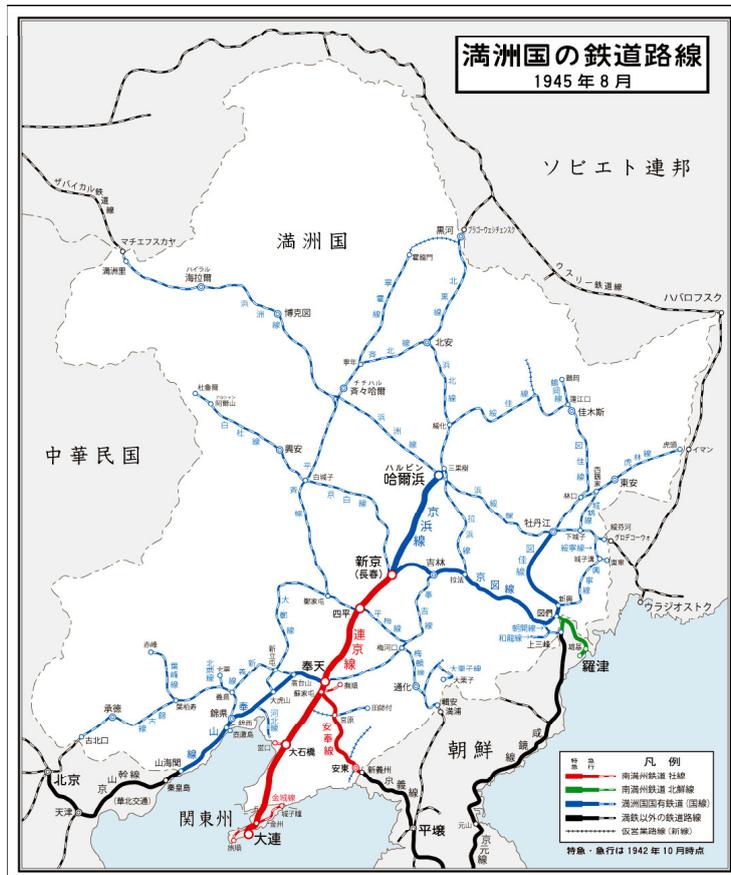
Rouille I Vestiges Rails
Rouille II

Directeur de la photographie / Monteur : Wang Bing - Assistant monteur : Zheng Huimin
Consultant montage : Lin Xudong - Chef Monteur : Adam Karby - Script : Li Hongbin
Monteur son : Han Bing, Chen Chen - Producteur : Zhu Zhu - Ventes Internationales: Vincent Wang
Production: Wang Bing Film Workshop - Co production: Hubert Bals Fund - Distribution: Ad Vitam

AD VITAM

동북삼성(東北三省)





만주국의 철도노선

철서구의 역사

- 1906년 러일전쟁 후 일본이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장춘(長春)과 대련(大連)을 잇는 철도의 권익을 확보
- 철로용지를 철도부속지로 바꾸고 장춘과 대련 사이 광대한 영토 점유
- 1913년경부터 "철로의 서쪽(鐵西)"에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
- 1938년 1월1일 부터 이 지역은 철서구(鐵西區)로 확정
- 1945년 8월까지 철서구는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공업과 중공업 중심의 일본자본의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1951~1961년 시기 소련이 지원한 "156공정(工程)" 중 24개가 요녕성에 집중되고 그 중 3개가 철서구에 자리 잡음
- 1953~57년 "제1차 5년계획" 기간 철서구는 기계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신중국" 건설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역
- "제2차 5년계획" 기간 동안 전국 중점공업기지 건설 예산의 1/6이 철서구에 투입
- 장비제조업을 기초로 하는 국유기업과 관련설비가 갖춰진 중국 최대의 공업기지
- 1980년대 개혁기 초기까지 철서구는 중공업 위주의 중대형 국유기업과 소속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지역





해방 전 철서구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

- 동북지역은 개혁기 탈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적합한 구조전환이 지연
- 중대형 국유기업이 탈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부적응한 결과, 공장은 조업중지, 노동자는 "하강(下崗)", 정부 재정수입 감소, 생활수준 하락
-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중화학공업 위주의 중대형 국유기업이 큰 비중
- 개혁기에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징이 현저
- 1980년대 일련의 국유기업 개혁조치로 기업 경영자율성 제고와 노동자 지위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

- 2002년 철서구와 심양경제기술개발구가 합서판공(合署辦公)을 통해서 철서신구(鐵西新區)가 됨
- 2004년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동북진흥(東北振興) 정책 실시
- 사회주의 시기 상징이던 심양야련창(瀋陽冶煉廠)의 100m에 달하는 3개의 굴뚝을 철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서구 중대형 국유기업의 철거이전이 시작
- 2007년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노후공업기지 조정개조 및 장비제조업 발전 시범구" 칭호를 받고 노후공업기지 개조와 진흥의 시범지역이 됨
- 2009년 철서구에 있던 400여개의 공장부지는 상업용 건물과 공업문화유산(工業文化遺產) 지역이 됨

동북 국유기업 개혁 지연의 원인

- ▶ 철서구를 포함하는 동북지역은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실체적 상징적 기반
- 동북지역은 사회주의시기 중국 전체 2차산업의 1/4을 차지, 중화학공업 위주, 중대형 국유기업에 소속된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1952년 12월 완공된 신중국 최대의 "공인촌(工人村)"에서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면서 거주
- 중화학 공업 위주의 중대형 국유기업과 "선진적" 노동자 계급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동북지역은 "동방의 루르", "공화국 장비부", "공화국 공업장자"로 불림
-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적 상징적 아이콘인 동북지역에 대해서 시장화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민감한 사안

▶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사회정치적 의미

- 개혁기 이전 중국은 “기업이 사회를 담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기업은 소속 노동자에게 하나의 사회와 같은 역할
- 중국 사회주의 전개과정에서 기업은 당조직을 통해서 소속 노동자와 당-국가를 잇는 정치적 역할과, 주택 의료 보험 육아 문화활동까지 책임지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담당
- 동북지역은 단위체제의 전형성이 두드러진 곳으로, 개혁기에도 과거 단위체제의 유산이 강고

공간생산 전략

동반서건(東搬西建)과 합서판공(合署辦公)

- 동반서건, “동쪽에 있는 기업을 서쪽으로 옮겨 짓는다”
- 합서판공, “두 개의 다른 편제와 직책을 가진 당정(黨政) 기구가 업무대상과 업무성질의 상호 유사성이나 다른 기타 이유로 동일한 지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두 기구의 인원과 자원을 상급기관이 융통성 있게 지휘하는 것”
- 동북진흥 정책 직전인 2002년 철서구는 “하강의 도시(下崗之城)”으로 불릴 정도로 국유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가 정점에 달함
- 1100여개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은 90%, 전체 30여만명의 노동자 중 절반이 하강상태

- 철서구는 “합서판공”으로 시급(市級) 관할권을 보유하게 되고, 토지사용권 판매로 인한 수익을 유보
- 2001년 경 심양시 중심지역 토지사용권은 1m² 당 2000위안 이상이나, 철서구는 500위안에 불과
- 토지사용권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장부지를 이전하고 구 정부의 재정수익을 확보하는 “동반서건” 방식은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핵심전략
- 동반서건은 단지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따른 재정적 문제의 해결방법만이 아닌, 보다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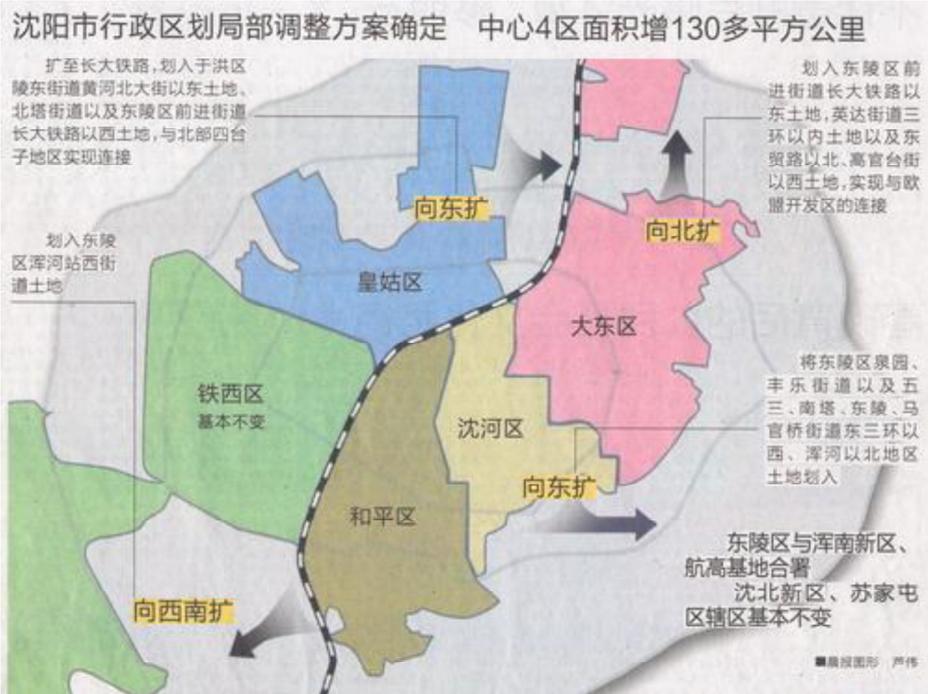
공간생산 전략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

▶ 동반서건: 공간이전 통한 "축적의 위기" 탈출 전략

- 기존 노후공업기지는 경제적 실체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사회정치적 실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축적의 위기"는 단지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
- 따라서, 동반서건은 공간이전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조정(重組)과 소유권 제도개혁(產權改革)을 진행하는 것
- 그 정치적 사회적 최종목표는, 동북지역의 강고한 "전형단위제"를 해체하고 "사구(社區)"를 건설하여, 탈사회주의 시기 시장경제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 합서판공도 단순히 행정적 효율 제고를 위한 행정편제 조정이 아님

- 합서판공은, 단순히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능동적 주도로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사회정치적 주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함
- 개혁기 지방정부의 "도시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rialism)"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
- 토시소유권, 각종 인허가권, 행정권력 등을 장악한 기업가주의 도시정부는 중국식 성장연합(growth coalition 增長聯盟)을 주도



심양 행정구획도



철서신구 발전개념 기획방안



철서구 발전 계획도

신동북현상

- ▶ 동북현상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기업도산 노동자해고로 지역전체가 쇠퇴하는 현상; 대응책 "동북진흥" 정책
- ▶ 신(新)동북현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도시 GDP 성장률 급감, 인구감소 등; 동북지역 출산율은 한국일본 보다 낮음
- ▶ 「길림보고(吉林省經濟結構轉型昇級報告)」
월드뱅크 전 부총재 북경대학 교수 린이푸가 이끄는 팀이 내놓은 길림성 경제구조 변화 및 업그레이드 정책보고서;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혁"
→ 전국적 범위에서 강력한 반론에 직면
; 중국제조업2025, 공급측개혁...

<http://www.ajunews.com/view/20170828110449611>

결론

- ▶ 상해 푸둥신구
: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개방 실험
→ 국가급 신구(1992), 종합총괄개혁시험구(2006)
자유무역시험구(2013)
- : 지방정부 리더십의 역할
→ 주룽지, 황쥐
- : 실험성과의 확산
→ 푸둥신구의 설계자 황치판(1952년생, 푸둥신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2001년 충칭시 부시장 및 시장)과 "충칭모델"

▶ 심양 철서구

: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중공업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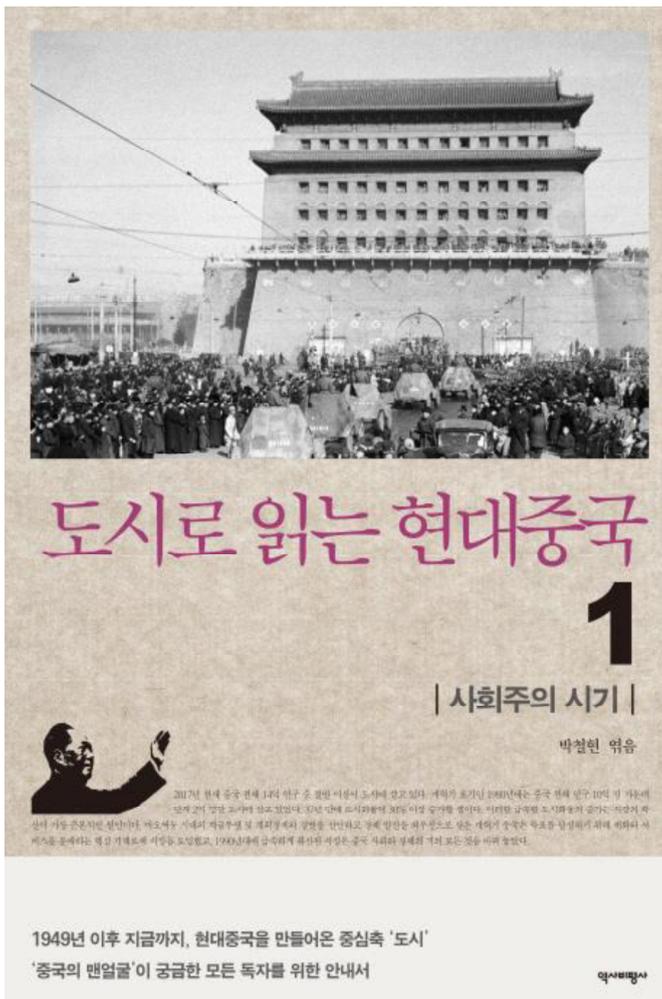
→ 1990년대 중후반 동북현상

: 중앙과 지방 차원의 대응

→ 동북진흥전략, 동반서건 합서판공

: 최근 신동북현상

본질적인 문제 미해결, 지역쇠퇴 지속, '동아시아의 변경'으로서의 동북지역의 특수성



1부 | 국가와 도시

도시로 간 농촌혁명가들과 '신민주주의혁명'
수도 베이징의 '도심' 정하기—'양진 방안'의 제기와 좌절
공인신촌엔 누가 살았을까—상해 차오양신촌의 사회주의 도시 개
조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 만들기—선양시 노동경쟁 캠페인과
공인촌

2부 | 공간의 생산, 도시의 실험

'국가'와 '사회'의 만남—베이징 가도 공간의 '지도'와 '자치'
사회주의 도시와 인간을 디자인하다—'도시인민공사'라는 실험
정치, 도시를 옮기다—내륙으로 간 중공업 도시 판즈화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초축적과 농민의 희생

3부 | 도시와 농촌, 이동과 상상

'죽의 장막'과 '은둔의 왕국'을 넘어—사회주의 시기 북중 국경 지역
조선족의 이주
흔들리는 청춘—루야오의 '도농교차지대'
사회주의 시대 노동자는 어떻게 말하는가—자장커의 <해상전기>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2

| 개혁기 |

박철현 엮음

2017년 현재 중국 전체 14억 인구 중 절반이 인양이 도시에 살고 있다. 개혁기 초기인 1980년에는 중국 전체 인구 10%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었다. 2017년에는 도시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 넘었다. 개혁기 초기에는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도시 인구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이후에는 도시 인구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다. 개혁기 초기에는 도시 인구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이후에는 도시 인구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다.

1949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국을 만들어온 중심축 '도시'
'중국의 맨얼굴'이 궁금한 모든 독자를 위한 안내서

역사비평사

1부 | 도시화, 신형도시화

도시화를 통해 본 개혁기 중국

급속한 도시화의 아이콘, 선전—이중도시, 이민도시로서의 발전
중국에서 도시민이 된다는 것—위계적 시민권과 서열화

2부 | 공간의 정치경제

국제대도시이기를 거부하다—홍콩의 도시공간운동

옛 주택은 옛 정책, 새 주택은 새 정책—상해의 주택제도 개혁

자본과 강탈의 도시, 광저우

토지, 욕망에 지다—공공토지 사유화 경향과 대책

항저우, 관광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3부 | 노동과 불평등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 속 농촌 출신 청년 노동자의 삶

도시 사회관리와 노동체제 개혁의 딜레마

노후공업도시로 풀어본 동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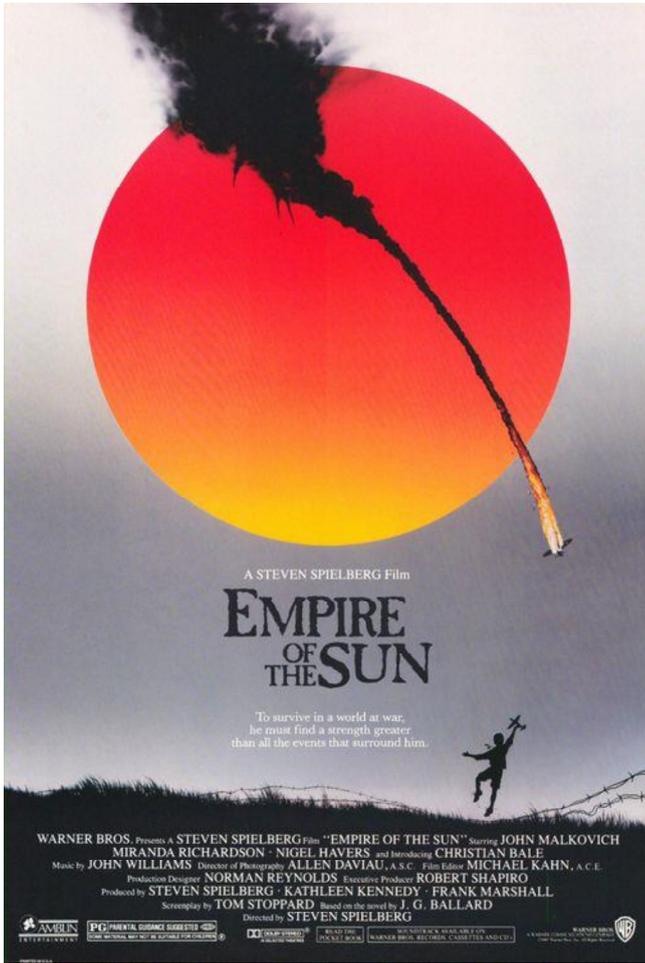
도시를 뒤덮은 담장—게이티드 커뮤니티와 도시 공간의 불평등

4부 | 네트워크와 예외 공간

초원과 도시의 동맹—윤리적 소비와 사막화 방지

도시 개발 속 스러져간 동향촌—베이징 성중촌의 어제와 오늘

추천 도서,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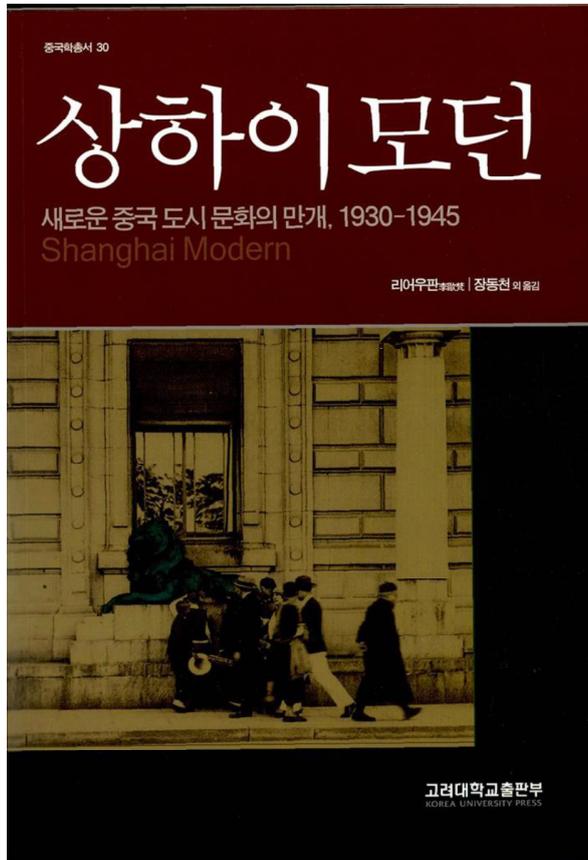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636>

1941년 상해를 침공한 일본군과 외국인 포로수용소의 소년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5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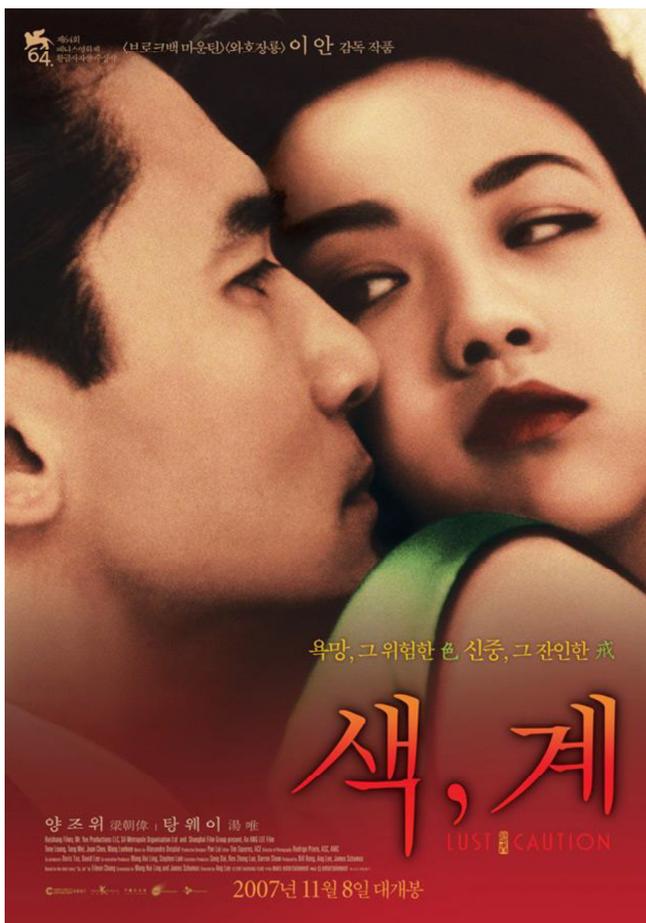
1949년 혁명 이후 상해, 홍콩, 타이완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한 상해 출신 사람들이 기억하는 17가지의 상해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3017599

상해 모던, 새로운 중국 도시 문화의 만개: 1930-1945

사회주의 건국 이전 "가장 화려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이었던 상해의 복합적이고 매혹적인 모습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1101>

1940년대 일본군 지배 하의 상해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상해 개황(2017)

일 반 사 항	자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長江 하류 삼각주에 위치, 黃浦江이 시내를 관통 ○ 면적 : 6,340.5km² (중국전체의 0.06%, 서울시의 10.5배) * 중국내 3번째 큰 섬 崇明島(1,041km²) 포함 ○ 연평균 기온: 17.6℃(최고 40.3℃, 최저 -1℃) - 연평균 강수량 : 1,302mm(우기 : 5-9월)
	인 구	○ 2,418만명
	행정구역	○ 16개區 (浦東新區, 黃浦區, 靜安區, 長寧區, 崇明區 등)
	주요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서 기 : 李 强(1959년생, 남, 2017.10 취임, 前) 江蘇省 당서 ○ 시 장 : 應 勇(1957년생, 남, 2017.1 취임, 前) 上海市 부시장 ○ 人大주임 : 殷一璀(1955년생, 여, 2013.2 취임, 前) 上海市 당부서기 ○ 정협주석 : 董雲虎(1962년생, 남, 2018.1 취임, 前) 上海市 홍보부장
경 제 현 황	주 요 경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 3조134억위안('16년대비 6.9%증가) ○ 1인당 GDP : 12.5만 위안(약 1.98만 USD) ○ 교역 : 3조 2,237억위안(수출 1조 3,120억위안, 수입 1조 9,118억위안)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 170.1억 달러('16년대비 -8.1%)
	주요산업	○ 금융, 항공·해운, 정보통신,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주 요 정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4. 상해자유무역시험구 3.0 발표하는 등 지속 확대 시행 -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 확대, 무역절차 간소화, 금융자본시장 개방(FT 계좌(자유무역금융계좌) 시행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추진 ○ <상해도시총규획> 규획기간(2017-2035), 경제·금융·무역·해운·과학 기술혁신 등 5대 중심센터구축, 장내외 개방 지속 확대, 張江국가자주혁신시 범구 발전, 녹색성장 발전방식 도입, GDP 성장률 6.5%, 상주인구 2,500만 명 제한,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70%까지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 ○ 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아시아 실리콘벨리) 조성 추진('15.9 발표), '16년 가속화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인재 유치, R&D예산 확 대, 창업혁신단지 조성 등 추진

▶ 한국과의 관계

1. 교역 및 투자

가. 교역 : 2016년 교역액은 227억 1,300만 달러

- (수출입) 수출은 21.2%, 수입은 11.8% 감소
- (무역흑자) 90억 9,700만 달러
 - * 한국-상해 교역액은 중국의 대한국 교역 총액의 8.9%를 차지
 - * 성시별 대 한국 교역비중이 주요 5개 지역: 광둥성(24.6%), 장쑤성(21.7%), 산둥성(12.2%), 상해(8.9), 저장성(5.2)

나. 투자

- (신규법인수) '16년 신규 법인 설립수는 126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1.3% 하락
- (투자금액) 동 기간 투자금액은 2.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 한국 對상해시 무역투자 추이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무 역	수 출 (백만 달러)	17,703 (26.5)	16,596 (-6.3)	16,448 (-0.9)	18,437 (12.1)	20,177 (9.4)	15,905 (-21.2)
	수 입 (백만 달러)	6,829 (23.4)	6,520 (-4.5)	5,519 (-15.4)	6,418 (16.3)	7,716 (20.2)	6,808 (-11.8)
	무역수지 (백만 달러)	10,874	10,076	10,930	12,019	12,461	9,097
투 자	법인 수 (개사)	167	137	132	131	142	126
	투자금액 (백만 달러)	315	275	157	243	301	294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다. 상해 진출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

- 지방자치단체(11개) : 부산, 대구,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전(남경)
- 정부유관기관 : KOTRA, 무역협회, aT, 무역보험공사, 관광공사, 해양수산개발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 중소기업중앙회 등
- 금융기관
 - 화동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기관은 은행 9개, 증권·투자회사 9개, 보험회사 3개, 카드사 1개
 - (은행) 한국, 산업, 수출입,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대구은행
 - (증권/투자회사) 현대, 대우, NH, SK, 신한투자금융, 미래에셋, 하이자산, 한국투신, KTB
 - (보험/카드) 삼성재산, 한화생명, 무역보험공사, BC카드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계
은행	한국, 산업, 우리, 신한, 하나, 국민, 대구, 수출입은행	기업, 우리, 신한, 하나, 국민	-	9
증권	현대, 대우, NH, SK	-	-	4
자산운용·투자	미래에셋, 한국투자, 신한, 하이자산, KTB네트워크,	-	-	5
기타	삼성재산보험, 무역보험공사, BC카드	삼성재산보험	한화생명	4
계	20	1	1	22

(3) 주요 투자진출기업 (6천여개 추정)

- 상해시 : 롯데, SK 등 지역본부, 삼성물산 등 상사, 아모레퍼시픽, 농심 등 생산판매 법인, 이마트 등 유통업체
- * 강소성 : 삼성전자/반도체(소주), 포스코(장가항), LG전자·금호타이어(남경), SK하이닉스(무석), 기아차(염성) 등 생산공장
- * 절강성 : LG생활건강(항주), LG화학, 한화, 삼성중공업(영과), 한국타이어, 효성스판텍스(가흥) 등이 있고, 운주에는 안경제조업체, 이우에는 소규모 무역상 진출

2. 교민

- 교민수(재외국민) : 약 3.27만명(2016.12 기준)
 -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우리기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한인사회가 조성되기 시작, 매년 규모가 증가하다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
 - 중국 법규상 외국인의 단체결성이 허용되지 않아 합법적인 한인대표 기관은 없으나, 상해 한국상회(1993.6 발족)가 그 역할을 수행
- ※ 재외국민(2016.12 기준) : 강소성 1.86만명, 절강성 0.76만명, 안휘성 0.13만명
- * 상해 상주 교민수는 21,497명으로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총 175,674명)
- ※ 조선족(중국인, 2016.12 기준) : 상해 4.58만명, 강소성 2.6만명, 절강성 1.07만명, 안휘성 0.18만명

	재외국민				조선족(중국인)
	영주권자	체류자		계	
		일 반	유학생		
상해	58	21,439	11,233	32,730	45,822
강소성	67	14,541	4,006	18,614	26,060
절강성	6	3,500	4,146	7,652	10,713
안휘성	4	849	476	1,329	1,861
총 계	135	40,329	19,861	60,325	84,456

- 유학생수(대학생) : 11,233명('16.12 기준)

- 상해한국학교(1999.9.1 개교)
 - 학생수 : 1,395명(초등 589명, 중등 338명, 고등 468명)
 - ※ 강소성 無錫('06년 개교), 蘇州('14년 개교)에도 한국학교 소재
- 교민언론 : 상해저널, 상해경제, 상해한인신문, Edu뉴스 등 6개 교민지
- 종교단체: 개신교 15개 단체, 천주교 2개, 불교, 원불교 각 1개 종교단체 활동중
 - ※ 중국은 종교비자 비허용

3. 지방자치단체 교류

- 부산시와 자매 도시 관계
 - 구(區) 차원에서는 루완구(盧灣區)-부산 영도구, 바오산구(寶山區)-서울 금천구, 홍커우구(虹口區)-부산 동래구, 칭푸구(靑浦區)-충남 보령시
- 전라남도, 전라북도와의 우호 교류 관계

4. 독립·역사 유적

가.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臨政廳舍)



-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상해로 건너간 독립투사들이 활동한 거점
- 89년 상해시 지하철 건설계획에 의해 철거위기에 있다는 언론보도로 관심 고조
- 90.02 상해 시정부, 루완구(現 황푸구) 문물보호 중점 174호로 지정
- 92.02 삼성물산, 상해 루완구 문물보호관리소 복원합의서 체결
 - 삼 성 : 복원 및 주민이주 비용 지원(30만불)
 - 중국측 : 복원후 관리
 - ※ 한-중 미수교로 민간기업인 삼성물산에서 추진
- 2001.12.19 임정청사 확장 보수 재복원 기념식
 - 독립기념관측이 56만불 투입
 - 현재 대지면적 244㎡, 연 건축면적 483㎡

- 소재지 : 上海市 黃埔區 馬當路
- 규 모 : 연립주택형 3층 건물로 건축면적 145㎡
- 임시정부 사용기간 : 1926.12.1~1932.5.3
 - 당시 임정수반 : 홍진, 김구, 이동녕 선생
- 규 모 : 연립주택형 3층 건물로 건축면적 145㎡
- 임시정부 사용기간 : 1926.12.1~1932.5.3
 - 당시 임정수반 : 홍진, 김구, 이동녕 선생
- 개방시간 : 09:00-11:30, 13:30-16:30

나. 매헌(梅軒) : 魯迅공원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 기념 정자(亭子)



- 1932.4.29 일본침략군이 상해사변 전승 축하식 겸 일본천황 생일 축하의식을 거행하던 홍커우공원(現 魯迅공원) 현장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 “시라가와” 총사령관 등 일본의 주요 지휘관을 살상케한 현장
 - 윤의사는 현장체포, 1932.12.19 일본 金澤감옥에서 25세를 일기로 순국
- 1994.4 상해시 홍커우구가 노신동상 우측 10m 지점 호수옆에 윤봉길 의사 기념 정자 (4각형의 2층 건물, 68㎡) 및 기념비(높이 1.5m, 폭1.4m의 자연화강석) 건립
 - 1994.8 기념정자에 「梅亭」 현판 부착, 윤의사의 본명은 禹儀이며, 아호는 梅軒이고, 奉吉은 별명
 - 1994.8 매정 주변을 매원(梅園)이라고 명명하는 안내판을 정자 입구에 설치
- 2003.12 매정내 「윤의사 생애 사적 전시관」 개관, 윤의사 흉상 설치
- 2009.4 윤의사 기념정자 梅亭의 명칭을 윤의사 아호인 梅軒으로 변경
- 소 재 지 : 上海市 虹口區 四川北路聶愛支路 280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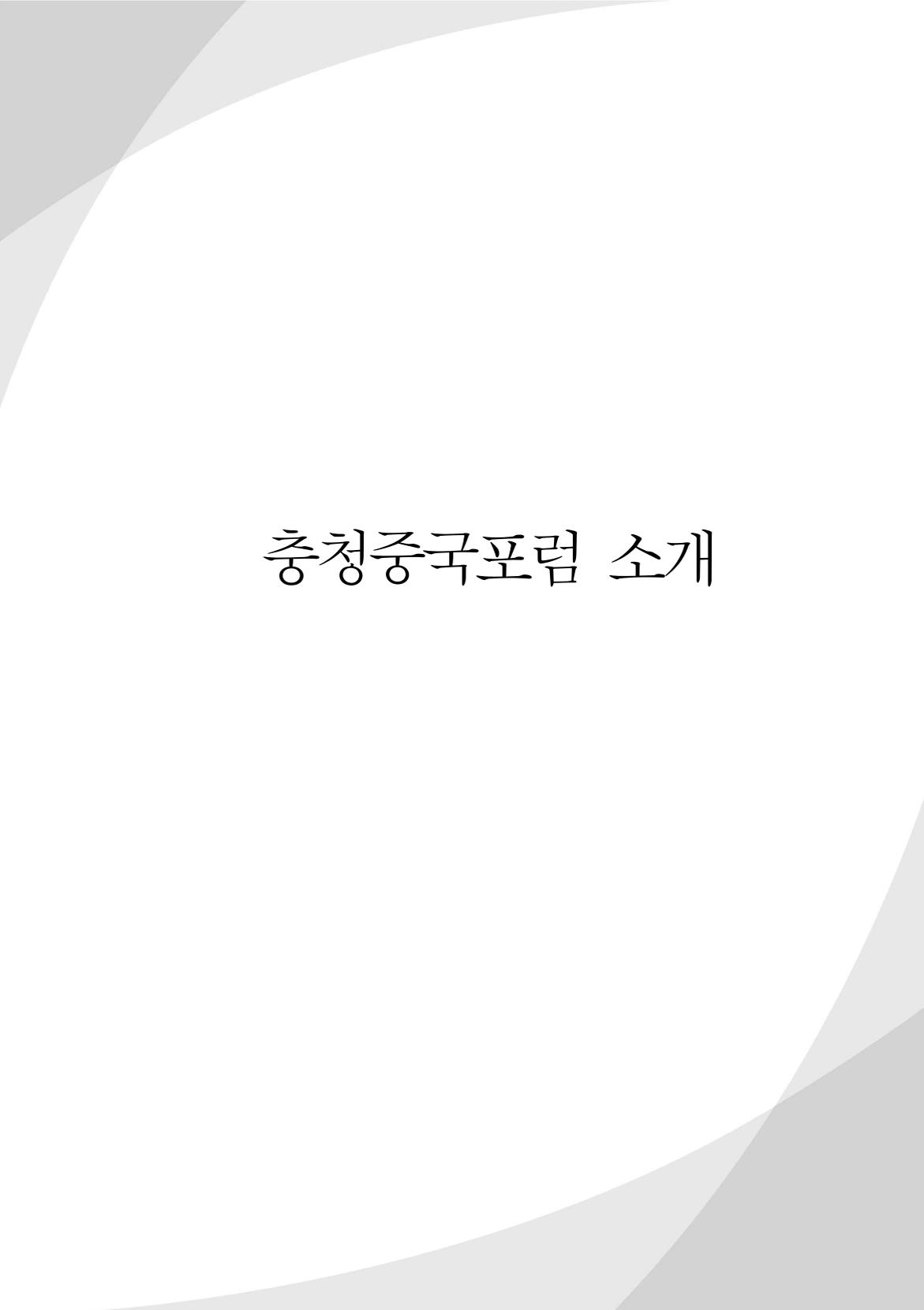
출처: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http://overseas.mofa.go.kr/cn-shanghai-ko/brd/m_494/view.do?seq=12999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심양 개황

가. 개황

- 기본특징 : 요녕성 행정, 경제, 문화교육의 중심(성도)
- 자연조건
 - 면적 : 12,980km²(市区 면적은185km²)
 - 기후 : 온대 계절풍 기후 (연평균온도 6.2-9.7℃)
- 인구 : 829만명(2016년)
- 주요 행정구역 (10 시구, 1 현급시, 2 현)
 - 沈陽市區(10) : 和平區, 沈河區, 大東區, 皇姑區, 鐵西區, 蘇家屯區, 渾南區, 于洪區, 遼中區, 沈北新區
 - 縣級市(1)·縣(2) : 新民市, 康平縣, 法庫縣
- 경제현황(2016년)
 - GDP : 7,280억 위안
 - 산업별 GDP : 1차 266억 위안, 2차 2,136억 위안, 3차 3,058억 위안
 - 1인당 GDP : 65,851위안(\$10,289)
 - 고정자산투자 : 1,632억 위안(↓69.4%)
 -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 36,664 위안(↑7.1%)
 - 농민순수입 : 13,498 위안(↑7.8%)
 - 외자유치 : 8.2억 달러
 - 대외수출입총액 : 113억 달러(↓19.3%)
- 지방 정부조직
 - 市委书记 : 易炼红
 - 市长 : 姜有为
 - 人民代表大会 主任 : 潘利国
 - 政治协商会议 主席 : 韩东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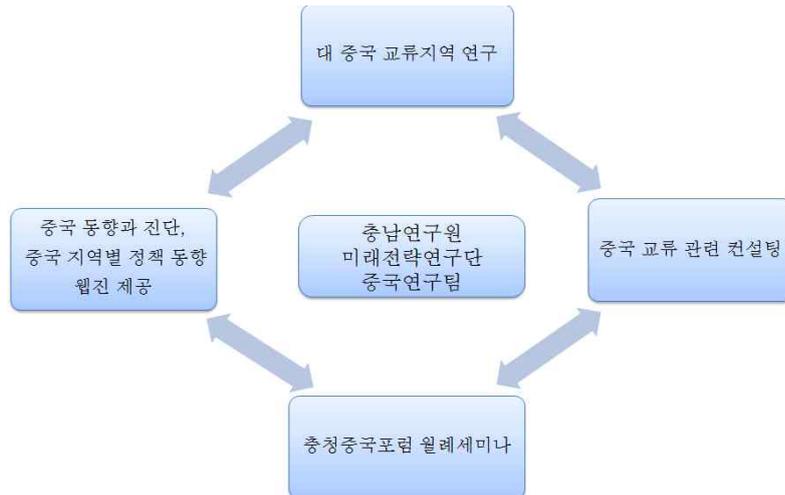
출처: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http://overseas.mofa.go.kr/cn-shenyang-ko/brd/m_580/view.do?seq=1143782)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청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청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관/주대한민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역(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蓬萊)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경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 정책의 해독	원테권(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 원장/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28회	2018.2.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